

독서교육을 이용한 식생활 단위 수업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및 적용

한가은* · 유지연** · 정인경*** · 김정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성여자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Plan in Food and Nutrition Area by Using Reading Education

Han, Ga-Eun* · Yoo, Ji-Yeon** · Jung, In-Kyung*** · Kim, Jung-Hyu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Hansung Girl's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interest of food and nutrition area in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as well as food safety and choice. For that, we developed new teaching-learning plan by using reading education method and applied to the 9th grade students in Buchun, Kyunggi-d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test score in nutrition sectio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ere educated by general lecture or reading education method for 4 weeks and the effect of different educational methods was tested.

The results of study as follow:

First, teaching-learning plan by using reading education method has been developed. To apply reading education method, we developed reading record cards which could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terminology and nutritional problems. In addition, students had time to discuss about food safety and choice after reading education which could improve the interes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and communication skills.

Second, after applying the developed lesson plan, the results showed that reading education method improved the interest and attitude about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and teacher, and food choice attitude. However, reading education method had no effect on the interest on reading book about food and nutrition, and dietary behavior.

1) 교신저자: Kim, Jung-hy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78 Fax: 02-817-7304 E-mail: jjhkim@cau.ac.k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reading education method improved the interest and recognition about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and teacher and food choice attitude. Therefore, to establish the proper dietary behavior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 need to develop and apply diversity of teaching-learning plan by using reading educational method.

Key Words: 독서교육(Reading Education), 식습관(Dietary Behavior), 교수-학습 지도안(Teaching-Learning Pla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양 지식을 함양시키고,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기 식생활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을 확립하는 것이 정신적·육체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문수재·이영미, 1986). 또한 산업화와 외식 산업의 발달, 편의 위주의 식생활 등으로 다양한 식생활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강의식 수업 방법은 식생활에 관한 기초 지식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다양한 주제의 식생활 문제를 다루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 식품 선택이나 규칙적인 식사 행동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독서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독서를 교육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의 효용성과 사실성을 판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 이러한 독서의 장점은 전통적 강의식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학습 능력과 고등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교과에서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독서교육을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

독서교육의 장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독서교육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특정 교과에 편중되어 있고,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숙, 2007; 김소영, 2005; 박미정, 2005). 특히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TV와 같은 대중 매체의 발달로 흥미 위주의 환경에 적응된 학습자에게 독서 활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안희자,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가정 교과 내용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 단원의 '식품의 선택과 구입'과 '식사 준비와 평가' 단원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이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수업에 적용한 후 기술·가정 교과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식습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식생활 단원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한다.

나. 식생활 단원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서교육

독서란 단순히 문자나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제시한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여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사고 과정이다(김효정 외, 1997). 또한, 독서는 독자의 논리적·창의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며,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도와준다(이현주, 2006). 따라서 최근에는 교과 학습에 독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을 교과 교육과 연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도, 1997; 노명환, 2005; 박영목 외, 2001).

독서를 교과 교육과 연계하는 경우 학생들의 인지적·인성적인 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도, 1997; 박영목 외, 2001; 한광희, 2006). 독서를 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지적·인격적·정서적 인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광희, 2006). 또한, 독서를 이용한 교육은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 대리 경험의 기회 제공, 정보나 지식 제공 등과 함께 사고력과 원만한 인간성을 갖도록 도와주었으며,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상상력,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유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도, 1997; 박영목 외, 2001).

독서의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교과 교육에 독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한광희, 2006).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재량 시간에 독서 지도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도 독서 시간을 따로 만들어 교육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광희, 2006). 또한 학생들은 교과와 관련된 서적을 가장 읽고 싶

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양 서적과 진로 서적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한광희, 2006).

독서교육의 효과와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는 각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교과 시간을 통한 독서 시간의 확보와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추천 도서의 활용 및 독서 지도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독서교육과 가정과 교육

교과 학습과 관련된 독서교육은 독서 의욕과 흥미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의 획득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평생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도와준다(장수연, 2005). 또한, 독서교육을 교과 교육과 연계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어려운 어휘나 개념을 독서를 통해 쉽게 터득할 수 있어 교과서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독서교육을 교과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 목표는 나와 가족을 이해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연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 기술·가정 교과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 외에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여야 하며, 이는 교과 교육과 독서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교육을 기술·가정 교과와 연계하게 되면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교육을 활용한 교육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독서를 통해 갖게 된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매사에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되어 기술·가정 수업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수업에 대한 흥미와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가정 교과와 독서교육의 연계에 관한 연구나 이를 활용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3. 식생활 교육의 현황

기술·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은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단원으로 건강한 신체 발육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 섭취 상태가 일생의 건강을 지배하고 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식태도는 성인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안순례, 1998). 특히, 최근에는 먹거리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나타나면서 이 단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영양 불균형의 문제와 잘못된 식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과를 통해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식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방법이다(김경미·이심열 2001; Agron 외 2002; Auld 외 1999).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술·가정 수업을 통하여 영양 지식을 습득하였고, 수업 후 영양 지식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김수원, 2006; 김수형, 1989; 박인영, 2003; 오금향, 1992). 또한, 영양 지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가정 교과를 통해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영양 지식의 습득을 높이고, 식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식습관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방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안혜경, 1994). 또한, 식생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올바른 영양

지식과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흥미롭고 실생활에 필요한 식생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생활 단위 수업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기술·가정 수업 시수의 부족과 학교 여건상의 문제로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어려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영양 지식과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강혜경, 2007).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단원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독서를 식생활 단위 교육에 활용한다면 교과서에 있는 체계적인 지식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며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고 영양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독서를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서 식생활 문제를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 단원에서 독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그 지식을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식생활 단원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독서를 활용한 식생활 단원의 수업은 [그림 1]과 같이 설계되었다.

E	O ₁	X ₁	O ₃
C	O ₂	X ₂	O ₄
E :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		C : 통제집단(Control group)	
O ₁ : 실험집단 사전 검사		O ₂ : 통제집단 사전 검사	
X ₁ : 독서를 활용한 수업		X ₂ : 전통적 강의식 수업	
O ₃ : 실험집단 사후 검사		O ₄ : 통제집단 사후 검사	

[그림 1] 연구의 실험 설계

독서교육에 활용할 도서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독서 지도 매뉴얼과 중학교 3학년의 기술·가정 교육과정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교과별 추천 도서 목록 등을 참고로 하였다. 도서 자료는 중학생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도서로 식생활 단원의 교과 내용인 식품 영양 표시, 가공식품의 문제점, 건강한 식생활 등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였다.

실험 처치 전 미리 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해당 서적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험집단 내 학급 문고에도 비치하여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 문고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다. 독서교육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일 아침 자율 학습 20분과 방과 후 시간에 충분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학급 문고에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독서 카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치하고 독서 활동 후에 독서 카드를 작성하면서 도서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독서 카드는 중학교 3학년 식생활 단위 중 ‘식단과 식품의 선택’ 단원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독서 카드의 작성은 독서 활동 후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식생활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스스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선정된 도서 자료 중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읽기 자료로 발췌하여 수업 중에 활용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읽기 자료를 제작하였다. 독서교육 수업에서는 주로 선행 독서 활동과 독서 기록 카드의 작성, 그리고 수업 중의 읽기 자료를 통해 식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생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지는 주로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식생활 문제를 독서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해 봄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기간은 4주, 총 8차시로 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술·가정 수업은 주 3시간 수업이나 본 연구는 기술 교과와 팀티칭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져 주 2시간으로 총 8차시에 걸쳐 수업을 실시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은 매 차시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과 독서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독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독서 활동을 할 때 독서 기록 카드, 학습 활동지 등을 작성해 봄으로써 식생활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주제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적 강의식 수업으로 8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연구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고혜란, 2001; 이정원, 2000; 이지현, 2007)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표본 집단 선정을 위한 영양 지식 성취도 검사지와 실험 처치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영양 지식 성취도 검사지는 총 18문항 4지 선다형으로 개발하였으며 중학교 1, 3학년 기술·가정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영양소의 기능, 균형식과 식품 가공, 식

<표 1> 영양지식 점수를 이용한 사전 검사

	구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영양지식 성취도	실험집단	34	11.59	2.176
	통제집단	34	11.29	2.703

이요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사후 검사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독서교육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도(5문항), 기술·가정 교사에 대한 인식(2문항), 식생활 단원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6문항), 식생활 관련 독서 관심도(5문항), 식사의 규칙성이나 편식, 영양 지식의 실천도 등을 알아본 식습관(15문항),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식품 혹은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구입 시 어떠한 식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묻는 식품 선택에 관한 태도(12문항), 식생활 문제 관심도(5문항) 등에 관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단계 Likert 형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본 검사도구의 평균 신뢰도는 .887이었다.

3. 연구 적용

본 연구에서 독서교육을 위한 수업은 2008년 3월 17일부터 4주간 총 8차시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천시에 소재한 Y중학교 3학년 중 2학급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영양 지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양 지식 점수가 11.59와 11.29로 유사한 2학급을 선정하여 (표 1) 한 학급은 독서교육을 위한 실험집단, 다른 학급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은 각각 34명이었으며 남녀 혼합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의 수업은 식생활 단원을 독서교육과 접목시킨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독서 활동 후에 독서 기록 카드와 학습 활동지 작성, 토론 학습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수업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교과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 및 식품 선택에 관한 태도에 관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독서를 활용한 식생활 단원의 수업이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결과를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서 ‘식품의 선택과 구입’과 ‘식사 준비와 평가’ 단원을 총 8차시로 하여 독서교육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고,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1차시 수업은 독서교육을 위한 사전 교육 시간으로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장 도서를 소개하며,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식생활 관련 독서의 이해를 돕고 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7학년에 배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 수업은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관한 수업으로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자연 식품의 종류와 올바른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후반부에서는 가공식

<표 2> 차시별 독서교육의 내용

차시	단원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활용도서
1	식품의 선택과 구입	독서의 필요성과 도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 6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말할 수 있다. 	
2		자연식품 올바른 선택 방법과 가공식품에 관한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가공식품과 식품 영양 표시에 관한 독서를 통하여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지 마 위험해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2 • 장수 밥상의 비밀 • 밥상을 다시 차리자 2
3		식품 영양 표시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첨가물의 정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영양 성분표를 분석할 수 있다. • 식품 영양 표시를 보고 가공 식품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지 마 위험해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2 • 장수 밥상의 비밀 • 밥상을 다시 차리자 1,2
4		가공 식품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가공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 토론 학습의 진행 방법을 익히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지 마 위험해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2 •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 조작식품
5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조작식품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 조작식품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2
6	식사 문제와 평가	건강한 식생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독서 활동을 하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먹고 잘사는 법 • 장수 밥상의 비밀 • 밥상을 다시 차리자 1,2
7		건강한 식생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건강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 밥상의 비밀 • 잘 먹고 잘 사는 법 • 밥상을 다시 차리자 1,2
8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교육을 정리하며 영양 지식과 상식을 이용한 퀴즈를 풀 수 있다. 	

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과 식품 영양 표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를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시의 독서교육을 통하여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식품 영양 표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 수업은 가공식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식품 영양 표시를 직접 살펴보고 분석해 보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 영양 표시를 주제로 하여 선정한 ‘먹지 마 위험해’,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2’, ‘장수 밥상의 비밀’, ‘밥상을 다시 차리자 2’ 등의 도서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아침 자율 학습 시간과 전시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 전에 읽도록 하였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표시 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였고, ‘식품 첨가물 많은 과자는 毒’

이라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전개 부분에는 학생들이 가공식품의 식품 영양 표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스스로 식품 영양 표시를 해석하는 학습 활동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식품 영양 표시가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데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수업 후 식품 선택 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4차시 수업에서는 ‘환경호르몬’, ‘트랜스 지방’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고안하였다. 아침 자율 학습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식품이나 식품 성분, 이들의 특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4차시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는

선정 도서에서 발췌한 읽기 자료와 함께 자신이 준비한 책을 읽도록 하였다. 사전에 유전자 조작식품에 관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읽기 자료를 수업 시간에 읽게 함으로써 선행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독서 활동을 하면서 ‘유전자 조작식품’과 ‘트랜스 지방’, ‘환경 호르몬’ 등에 관한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였다. 특히 5차시의 토론 학습의 주제인 유전자 조작식품의 정의와 특징 및 장·단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독서 활동과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5차시 수업에 이루어질 토론 학습의 진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의 특징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조원들의 역할 분담에 관해 토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각 그룹은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 그 의견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사람, 반대 측 그룹의 의견에 대해 반론하는 사람과 토론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 수업은 토론 학습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식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 조작식품’,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 2’ 등 유전자 조작식품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도서를 활용하여 사전에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토론 수업 이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에 실시된 토론 학습에서 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각 조별로 찬성 측 발표자가 먼저 조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 후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이어 반대 조도 같은 방법으로 각 조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경청 한 후 조별로 작전 타임 시간을 갖고 반론과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약 5분간의 작전 타임 시간이 끝나면 양측 모두 반론자를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반대 심문과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변론할 시간을 준 후에 토론을 정리하였다. 수업을 정리하면서 각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기 전과 토론 후에 변화된 생각이나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6차시 수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하여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장수 밥상의 비밀’, ‘잘 먹고 잘사는 법’, ‘밥상을 다시 차리자’ 등의 도서 중 한 가지를 수업 시간에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독서 기록 카드의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에 대한 용어 정의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식품과 건강, 식생활 습관과 질병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식생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시 수업은 이전 수업 시간과 아침 자율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독서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전에 작성한 독서 카드를 모두 준비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나눈 후 독서 카드에 적은 자신의 생각과 식생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 활동과 독서교육을 통해 알게 된 식생활 관련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건강 십계명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건강 십계명은 중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나 식품 선택 방법 등을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발표 시간을 통해서 다른 소집단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건강 십계명을 작성한 후, 독서교육을 통해 알게 된 영양 지식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독서 스피치 문항을 창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소집단 별로 조원들 간에 충분히 의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작성 후에는 발표를 통하여 문항마다 표현한 단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8차시 수업은 독서 활동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영양 지식과 독서를 통해 알게 된 영양 상식을 퀴즈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6개의 소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였고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진 영양 퀴즈를 함께 풀어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전에 수행된 독서교육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학생들이 소집단에서 함께 풀도록 하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또한 퀴즈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의 답을 맞히는 과정에서 오답을 설명해주어 정확한 영양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독서교육의 결과

가. 독서교육이 기술·가정 교과 및 식생활 단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서를 활용한 기술·가정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여 기술·가정 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처치 전·후에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기술·가정 교사에 대한 인식, 식생활 단위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및 독서 관심도를 Likert 척도로 측정된 후 이를 비교·분석하였다(표 3).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통제집단은 사전의 15.76에서 사후 14.88로 흥미도가 감소한 반면, 독서교육을 한 실험집단의 경우 15.26에서 16.97로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5). 전통적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식만을 설명함으로써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 유발이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어려운 반면, 독서교육은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과의 흥미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가정 교사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 통제집단은 사전(6.35)과 사후(6.44)에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은 6.18에서 8.21로 사후에 유의적으로 높아져(p<.001), 독서교육이 기술·가정 교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전

통적 강의식 수업보다는 독서교육이 교과의 인식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수받는 강의식 수업 방법보다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고,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독서교육이 교사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기술·가정 교과와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는 추후 기술·가정 교과의 성취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식생활 태도나 식생활의 변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단위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식생활 단위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18.29에서 16.47로 실험 처치 후 감소된 반면,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경우 16.97에서 18.74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의식 수업이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서교육과 같은 활동 중심의 수업이 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 흥미도를 높이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처치 전·후 식생활과 관련된 독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경우 식생활 관련 독서 관심도가 13.76에서 13.09로 감소한데 반해,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경우 14.15에서 15.65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은 독서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반면 독서교육은 학생

<표 3> 독서 교육이 기술·가정 교과 및 식생활 단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항 형태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 전	사 후	t-value	사 전	사 후	t-value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도	15.26±0.61	16.97±0.52*	2.077	15.76±0.61	14.88±0.44	-1.070
기술·가정 교사에 대한 인식	6.18±0.14	8.21±0.22***	6.573	6.35±0.31	6.44±0.32	0.179
식생활 단위과 식생활 관심도	16.97±0.58	18.74±0.61	1.880	18.29±0.95	16.47±0.88	-1.319
식생활 관련 독서 관심도	14.15±0.52	15.65±3.04	1.832	13.76±0.63	13.09±4.17	-0.628

*p<0.05, ***p<0.001

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4주의 짧은 기간은 독서에 대한 관심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지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장기간의 독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외 여러 단원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 한다면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술·가정 교과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독서교육이 식습관, 식품 선택 태도 및 식문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한 통제집단과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식습관 및 식생활 문제 관심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처치 전·후 식사의 규칙성이나 편식, 영양 지식의 실천도 등을 알아본 식습관,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식품 혹은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구입 시 어떠한 식품을 구입할 것 인지를 묻는 식품 선택에 관한 태도, 식생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등의 3분야를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식습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식생활 등으로 이루어진 15문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식습관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의 52.03점에서 사후 48.29점으로 식습관 점수가 4점 정도 낮아진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의 점수가 사후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 4주, 8회 교과 수업만으로는 식습관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애·이경애(2007)의 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총 2달간, 8차시의 독서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식행동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식행동은 나이가 많을수록 고정되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중학생의 식습관은 짧은 기간의 수업만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독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식품 선택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식품 선택 태도가 유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는 수업의 주제가 주로 식품 선택에 관한 것이었고, 독서교육에서 이용된 도서 역시 식품 선택에 관한 내용이 많아 식품 선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식품 선택에 대한 교육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위주의 전통적 수업 방법으로는 다양한 지식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교수방법이 요구된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책을 읽어 다양한 식품 선택의 문제점을 접하고, 해결하도록 하여 실제 식생활에서의 식품 선택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식생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의 14.18점에서 14.38점으로 실험 처치 후 관심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16.44점에서 17.18점으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짧은 기간의 수업 처치로 실제 식생활에서 발생

<표 4> 독서교육이 식습관, 식품 선택 태도 및 식문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문항 형태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 전	사 후	t-value	사 전	사 후	t-value
식습관	50.85±1.29	50.71±1.00	-0.090	52.03±1.40	48.29±1.09	-2.072
식품 선택 태도	33.44±1.12	37.74±0.94**	2.946	34.56±1.31	37.38±1.02	1.608
식생활 문제 관심도	16.44±0.62	17.18±0.54	0.845	14.18±0.71	14.38±0.64	0.197

**p<0.01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접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식생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겨진다. 특히 4주간의 독서교육은 충분히 독서를 하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한, 두 권의 책을 읽어 식생활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고, 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독서교육과 함께 수업 시간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천 교과인 기술·가정 교과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교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서교육이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생활과 관련된 도서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였다. 식생활 문제를 주제로 하여 총 4주 8차시의 수업을 독서교육으로 진행하였다. 독서교육 수업은 수업 주제에 맞는 도서나 읽기 자료를 선정하여 읽게 한 후 독서 기록 카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간접적으로 접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독서교육 후 소집단 중심의 토론 활동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수업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해 인지한 영양 지식을 식생활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둘째, 개발된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의 수업이 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와 대한 인식과 식습

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서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경우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인식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며, 식품 선택 태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의 경우 기술·가정과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식습관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식생활 단원과 식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식생활과 관련된 독서의 흥미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교육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4주간의 수업에 맞추어 도서 목록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도서의 주제가 주로 식품의 선택과 영양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식생활 영역과 기술·가정 교과의 단원별 도서 목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과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도서를 목록화 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독서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식습관의 변화를 유발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독서교육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독서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독서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식생활 문제 관심도나 독서 관심도가 통제집단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양적인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변화를 알아보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독서교육의 다양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생활 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원에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혜경(2007).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교육 및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란(2001). **식생활 단원 교육이 중학생의 영양 지식·식태도·식습관 및 TV 식품 광고의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이심열(2000).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영양 지식 및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협회지**, 6(2), 97-107.
- 김성숙(2007). **교과 학습 관련 도서 자료를 활용한 독서 지도 사례 연구**.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05). **독서 자료를 활용한 수학 학습 지도가 학업 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원(2006). **기술·가정 교과 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 수업 만족도, 요구도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형(1989). **강릉시 여자 중·고등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도(1997). **초등학교 독서교육**. 서울: 교학사.
- 김효정·김승한·한복희·송영숙(1997).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 노명환(2005). **고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문수재·이영미(1986). 청소년의 식품에 대한 가치 구조의 분석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2), 142-156.
- 박미정(2005). **내용교과 독서가 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목·이인제·김양희·김승오(2001).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박인영(2003). **기술·가정 식생활 단원의 교육 전·후 중학생들의 영양 지식 및 식행동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교육청(2006). **중·고등학교 교사용 독서 지도 매뉴얼(기술·가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 안희자(2004). **통합적 독서 지도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례(1998). 광주 지역 여중학생의 도시락 영양 실태와 식품 기호 및 환경 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6(3), 53-68.
- 안혜경(1994). **남·녀 중학생의 식사 행동과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금향(1992). **여고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2000). 섭취식품 가짓수의 영양소 섭취 상태의 상관관계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2), 297-306.
- 이지현(2007). **과학 독서 지도가 중학생의 과학 개념 이해와 과학 및 과학 독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6).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중학교 독서 지도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연(2005). **초등교육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신애·이경애(2007). 아동 서적을 활용한 영양교육이 초등학생의 식품 기호 및 식행동에 미친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6(9), 1161-1171.
- 한광희(2006). **중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ron, P., Takada, D., & Pureell, A.(2002). California Project LEAN's Food on the Run Program: An evaluation of a high school-based student advocacy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2(3//SUP), S103-S105.
- Auld, G.W., Romaniello, C., Heimendiger, J., & Hambidge, M.(1999). Outcomes from a school-bas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alternating special resource teachers and classroom teachers. *Journal of School health*, 69(10), 403-408.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독서를 활용한 기술·가정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의 기술·가정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식생활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의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전의 영양 성취도 점수를 비교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으로, 실험집단은 독서교육을 활용하여 4주간, 총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차이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독서 활동 후에 개발된 독서 기록 카드와 학습지를 작성하면서 식생활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식생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독서를 활용한 토론 학습을 통해 기술·가정 수업의 흥미를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실험집단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에 비해 독서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기술·가정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경우 실험 처치 후에 식품 선택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실험 처치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식생활 단위와 독서에 대한 관심도, 식습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독서교육이 기술·가정과 수업의 흥미를 높이고 교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선택의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독서교육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17일